

GRI Trends In Perspective

2013년 7월 30일 (제12호)

발행처 경기개발연구원

발행인 홍순영

주소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홈페이지 www.gri.kr

자료문의 전략연구센터 (031-250-3126)

GRI TIP은 경제·사회의 동향과 이슈를 균형있는 관점에서 정리한 정책자료



동남아시아, 글로벌 경제 요충지로 부상

Points

동남아시아 경제권, 글로벌 생산거점 및 유망 소비시장이자 자유무역 허브로서의 전략적 중요성 점증

- 동남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Post-BRICs 경제권으로 빠르게 부상
- 최근 아·태지역의 다자간 FTA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선점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이 가세하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포괄적 협력 Agenda를 발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선점 기회 확장 및 중소기업 진출을 강화할 필요

2013년 2분기 GDP 성장률이 1.1%로 개선되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여 경기회복 국면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정부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견인되었으나 설비투자가 다시 감소로 전환하였고 민간소비도 여전히 부진
-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 능력 약화와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 달성 여부는 미지수

아세안(ASEAN)은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신흥 생산거점으로서 2015년을 목표로 역내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추진 중임

동남아시아 경제권은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글로벌 생산거점 및 거대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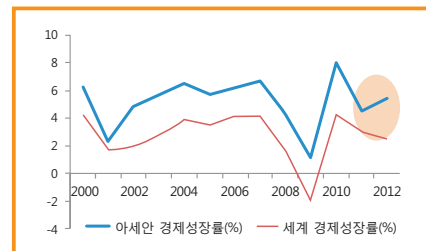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Post-BRICs 경제권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

- 세계와 BRICs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견조한 성장세 지속
 - 동남아시아는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실현 (아세안 경제성장률 : 2011년 4.7% → 2012년 5.5% → 2013년 5.2% 전망)
 - * 아세안 10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최근 아세안을 둘러싼 자유무역협정 논의 진전으로 아시아 경제통합 허브로 부상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밀집한 남중국해는 자원의 보고이자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는 수산자원, 광물자원, 석유, 천연가스 등의 매장량이 풍부
 - 남중국해는 미국의 對아시아 전략(중국 견제, 해상안보 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동남아시아는 신흥 글로벌 생산거점이자 잠재적 거대 소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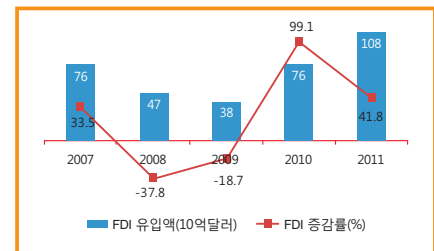
- 중국 소비시장에 근접해 있는 신흥 생산거점으로서, 적극적 외자유치로 제조업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역내 분업의 고도화 등으로 교역이 크게 증가
 - 아세안 국가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1년에 전년 대비 41.8% 증가
 - GDP 대비 교역량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107%에 달하는 개방형 경제(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아세안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14.4%)
- 신흥 자원부국으로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공급이 가능
 - 아세안 지역에는 팜오일, 커피, 석탄, 구리 등 천연자원이 풍부
 -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중국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인도네시아 임금은 중국 대비 1/3 수준)
- 중산층 증가, 도시화 확대, 높은 내수 비중 등으로 소비시장으로서의 높은 잠재성
 - 아세안의 중산층 인구는 2010년 5천만명에서 2020년 1억명으로 2배 증가할 전망
 -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12년 53.2%로 BRICs의 44.6%에 비해 높은 수준
- 국가간 심한 경제적 격차와 이질적인 종교·문화로 인해 주도 국가가 부재
 - 1인당 GDP는 싱가포르가 2012년 51,549달러인 반면 미얀마는 848달러에 불과

■ 세계 및 아세안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IMF, ADB

■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추이




자료 : ASEANsta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선점 경쟁 양상으로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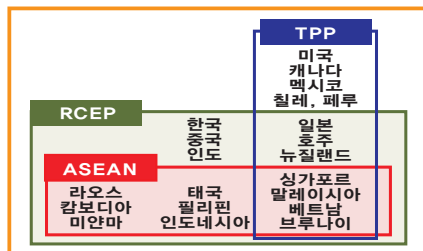
- 현재 아세안이 포함된 무역협정은 양자간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동시에 진행 중임
 -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FTA(12개국이 협상 참여)
 - RCEP는 중국이 참여하는 FTA로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여건을 반영하여 협상분야의 포괄범위가 TPP 보다 낮은 수준(16개국이 협상 참여)
-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블록화를 통한 아·태지역의 거대 무역권 형성 전략을 구사
 - 미국은 기업보조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TPP 협상 타결에 주력
 - TPP를 모태로 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참여시키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
-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를 견제하면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 경제권 형성 전략 추진
 -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개발, 광서북부만 경제구개발 등을 중국서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경제발전에 활용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중국 역할의 확대를 모색
 - 중국정부는 TPP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으로 판단하여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TPP 참여 여부 검토를 언급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
-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TPP 협상에 7월부터 참여하기 시작

아태지역의 다자간 FTA 논의에서 강대국간 주도권 경쟁의 심화 속에 한국은 중재자 역할 정립과 시장선점 전략이 중요한 과제

한국은 포괄적 협력 Agenda를 발굴하고 시장선점 기회를 확장시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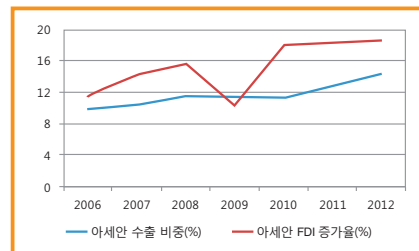
-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의 이해대립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포괄적 협력 Agenda를 제시하는 등 중재자적 'Soft Power' 를 구축할 필요
 - 강대국에 편승하는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
 - 남중국해 공동자원개발기구와 '아시아 경제통합' 구상에서 중재자적 역할 담당
- 향후 일본과 중국의 아세안 FTA 입지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정부는 TPP 협상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를 조속히 체결할 필요
- 동남아 개도국의 대규모 BOP(Bottom of the Pyramid; 저소득 계층) 시장을 겨냥한 '값싸고 괜찮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정기술 R&D 지원을 확대
- 경기도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교류 체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
 - 경기북부지역의 섬유·가구기업들은 동남아시아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및 디자인 수출 등을 밀착 지원 

■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정리

■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 비중 및 FDI 추이



자료 :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대비 1.1% 성장(한국은행 속보치)


- 2분기 GDP 성장률은 2011년 1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로 9분기 만에 0%대 성장의 늪에서 벗어남
 -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2.3%로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2%대로 진입
-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되고 정부소비, 건설투자, 수출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설비투자는 다시 감소로 전환
 -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 증대로 0.6% 증가,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이 모두 늘어나면서 3.3% 증가, 수출은 영상음향통신기기를 중심으로 1.5% 증가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줄어들면서 0.7% 감소(전년 동기 대비로는 5.1% 감소하여 4분기 연속 감소세)

한국경제의
2분기 GDP 성장률이
1.1%(전기 대비)로
호전되었으나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
진입으로 판단하기에는
내용적으로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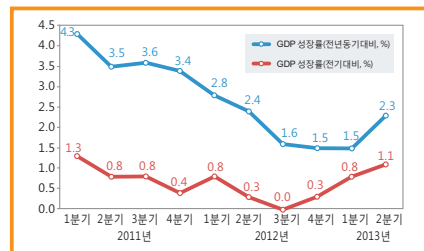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 진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정부지출 확대와 ICT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조가 성장률 개선에 크게 기여
 - 17조원의 추경 편성과 예산의 조기집행(상반기 60%) 덕분에 정부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0.4%p를 기록하여 민간소비 기여도 0.3%p를 상회(정부 주도 성장 회복)
 -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전년 동기 대비 24.3% 상승)과 스마트폰 수출 호조(39.7%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삼성전자는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실적 기록)
- 제조업과 건설업의 생산 활동이 1분기에 비해 약화되고 수출 증가도 둔화
 - 제조업의 부가가치생산이 1분기 1.3%(전기 대비) 증가에서 2분기 0.8% 증가로 둔화
 -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의 부가가치생산은 1분기 4.0%(전기 대비) 증가에서 2분기 1.5% 증가로 크게 둔화

정부재정 여건과 국내외 리스크 고려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7%) 달성은 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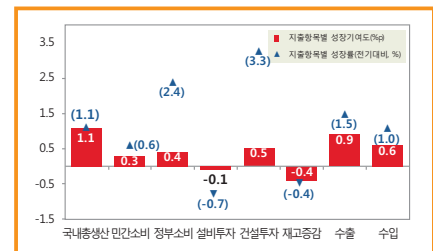
- 민간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 능력 약화와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은 국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상반기 정부재정의 조기집행 및 세수결손(5월까지 10조원)으로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 약화
 -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침체 등 국내 리스크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엔저 정책, 중국경제 둔화 등 해외 리스크도 하반기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2분기 지출항목별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